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야구선수도 마찬가지다. 시즌을 물음표로 시작했던 넥센 신재영(왼쪽)이 승승장구하고, 시범경기까지만 해도 특급 활약을 예고했던 한화 김재영이 정착 개막 후에는 2군에서도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하게 된 이유도 '기다림'의 차이였다.

넥센 신재영과 한화 김재영의 '두 갈래 길'

이재국의 야구여행

루키 투수의 가슴 떨리는 1군 무대 만약 감독이 김재영을 믿어줬다면? 반대로 신재영이 퀵훅 당했다면?

기로(岐路). 우리말로로는 갈림길이다.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인생은 매순간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인생을 닮았다

는 야구도 마찬가지다. 고(go)와 스톱(s top)의 두 갈래 길에서, 한 순간의 선택이 선수의 인생과 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넥센 신재영(27). 2012년 단국대를 졸업한 뒤 NC에 입단(신인드래프트 2차지명 8라운드 전체 69순위)하며 프로 물줄기를 시작했지만, 지난 4년간 1군 등판은 단 1경기도 없었다.

그러나 과정마저 순탄하지는 않았다. 첫 등판, 첫 순간부터 돌부리를 만났다. 6일 대전 한화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며 꿈꿨던 프로 데

뷔전이었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했다. 1회말 시작하자마자 한화 타자들은 신인에게 프로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려는 듯 작심하고 방망이를 들렸다. 1번타자 정근우 우월 2루타. 2번타자 김경언 희생번트. 3번타자 이성열 1타점 우익선상 적시타. 4번타자 김태균 우월 2루타. 5번타자 윌린 로사리오 중전 적시타. 5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희생번트를 제외하고는 단 1개의 아웃 카운트도 잡지 못하고 4안타 2실점했다. 그리고 계속된 1사 1·3루.

신재영은 턱아웃을 쳐다봤다. '고'일까 '스톱'일까. 넥센 영명 감독은 비가 흠날리는 그라운드만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넥센 벤치는 '고'를 선택했다. 신재영은 다시 숨을 고르더니 6번 신성현을 3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하면서 위기를 탈출했다. 그리고는 7이닝 3실점, 감격의 데뷔 첫 승을 올렸다. 영 감독은 그날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신재영은 어차피 커리어가 없는 선수다. 얼마나 긴장했겠나. 1회에 공이 가운뎃도 물리더라.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를 거쳐 가능성을 봤고, 그래서 선발 보직을 주기로 결정했다. 선수가 민망해질 정도로 얻어맞지 않은 이상 교체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 신재영에게 기대를 한 게 아니라 기회를 줬을 뿐이다. 그날 점수를 더 주면 타자들이 따라가면 되고,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

다. 선수도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야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성장한다. 이런 나만의 방식이 아닌, 넥센 구단의 방향이고 시스템이다."

같은 날, 광고롭게도 선발 맞대결한 한화 투수는 루키 김재영(23). 신재영이 중고신인 사이드암투수라면, 김재영은 홍익대를 졸업하면서 2016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 지명을 받고 입단한 특급 사이드암투수였다. 스프링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시범경기에서도 4경기에서 등판해 15이닝 1실점으로 방어율 0.60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선발한 자리를 꿰찼다.

그러나 이날 김재영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1회초를 무실점으로 넘어간 뒤 2-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 채태인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박동원의 중견수 플라이와 김하성의 볼넷으로 1사 1·2루. 여기서 견제로 2루주자 채태인을 잡아냈다. 2사 1루. 그러나 9번타자 임병욱에게 1타점짜리 좌익선상 2루타를 맞고 말았다. 이어 1번타자 서건창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2사 1·2루로 몰렸다. 한화 벤치는 교체를 지시했다. 2-1로 앞선 상황에서의 퀵훅(Quick hook·3실점 이하 투수를 6회 이전에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김재영은 이전에도 퀵훅을 경험했다. 2선발의 중책을 맡고 개막 이튿날인 2일 잠실 LG전에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2-0으로 앞선 2회말 2사 1·3루에서 김용주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운드를 내려야만 했다. 이어 나온 김용주와 장민제가 연속으로 볼넷 4개(3연속 밀어내기 볼넷)를 내주면서 김재영의 성적은 1.2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 1회부터 한화 벤치는 김재영을 믿지 못하고 볼펜에 2명의 투수를 투입해 몸을 풀게 했고, 김재영은 안타나 볼넷을 허용할 때마다 벤치의 눈치를 봤다. '눈치밥'을 먹던 신인은 이후 2차례 구원등판했지만, 타자와 상대하지 못하고 벤치 눈치만 살피다 결국 2군으로 내려갔다. 한번 말려버린 팔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퓨처스리그에서 2차례 선발 등판해 10이닝 14실점(8자책점)으로 방어율 6.97을 기록 중이다.

아직은 '씨앗'에 불과한 신재영과 김재영은 시작부터 돌부리에 직면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두 갈래 길에서, 한 사람은 휘청거리면서 돌부리를 넘어갔고, 한 사람은 비틀거리자마자 끌려 나왔다.

만약 신재영이 데뷔전에서 1회에 퀵훅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라는 물과 '인내'라는 거름을 만난 신재영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다. 반면 한화는 시범경기에서 김재영에게 기껏 기회를 주더니 정착 시즌 들어서는 퀵훅을 남발했다. 넥센과는 반대로 '기회'를 주는 대신 '기대'만 한 건 아닐까. 저조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서 퀵훅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건 벤치뿐이다.

keystone@donga.com

149km 찍은 로저스 "컨디션 85%"

퓨처스리그 등판 4이닝 2실점 "한 번만 더 던지면 100% 될 것"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 중인 한화 외국인투수 에스밀 로저스(31·사진)가 올 시즌 첫 공식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에 박차를 가했다.

로저스는 28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2군경기에서 선발등판해 4이닝 동안 4안타(1홈런) 무사사구 6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최고구속 149km의 직구(19개)와 커터(15개·최고 139km), 커브(9개·최고 124km), 체인지업(8개·최고 137km)을 섞어 총 51구를 던졌다. 기록보다는 통증 없이 4이닝을 소화한 부분, 평균구속이 147km까지 나온 점은 향후 전망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3회말 김지수에게 허용한 좌월 솔로홈런과 1사 1·3루에서 폭투로 실점한 것이 아쉬웠다.

로저스는 지난해 10경기에서 3완봉 승 포함 4차례나 완투하는 등 6승 2패, 방어율 2.97로 활약했다. 한화는 로저스에게 역대 외국인선수 최고몸값인 190만 달러를 안겨주며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0경기 만에 75.2이닝이나 소화한 로저스는 2월 말

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에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투구를 중단했다. 이후 한 달 이상 손에서 공을 놓고 재활에 매진했고, 5일 캐치볼을 시작했다. 이후 볼펜피칭, 라이브피칭을 거치며 통증이 없음을 확인한 뒤 첫 실전등판을 마쳤다.

로저스는 경기 직후 "지금 컨디션은 85% 정도다"며 "2군경기에 한 차례 더 등판해 70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 번 더 던지면 100%가 될 것이다. 5월 8일(수원 kt전) 1군에 복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 김성근 감독도 28일 대전 KIA전을 앞두고 "로저스의 투구는 기록만 봤다. 영상은 아직 못 봤다. 본인이 (5월)8일에 나간다고 했다더라"고 짧게 말했다.

대신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헬크의 꿈...야구 재능기부 재단 출범

(헬크파운데이션)

이만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지만" 청소년·아시아 야구 발전 팔견어

이만수(58) KBO 육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재능기부에 나선다.

사단법인 헬크파운데이션은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출범했다. 이사장은 이 부위원장이다. 헬크파운데이션은 "야구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 한국과 라오스 등지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

헬크파운데이션의 핵심은 역시 이만수 이사장이다. 이 이사장은 2014년 SK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후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로 건너가 야구 전파에 힘썼다. 그러나 혼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힘이 부쳤다. 이 이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껴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며 "다행히 좋은 참모들을 만나 1년 6개월 만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말처럼 재단 설립에 참모들(준비위원 6명)의 도움이 컸다. 특

히 재단 사무총장에 이름을 올린 박현우(34) 준비위원은 지난해부터 이 이사장과 동행하며 힘을 보탤다. 2004년 서울대 야구부의 공식경기 첫 승 당시 주장이기도 한 박 위원은 "우리 힘으로 좋은 일을 해보자는 이사장님의 뜻에 따라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다"며 출범 소감을 전했다.

헬크파운데이션은 창립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능기부를 진행한 상태다. 이 이사장은 "대한체육회 OD 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현지에 1600만원 상당의 야구장 비를 무상으로 지원했고, 3월에는 권영진(48) 전 대구고 감독을 라오스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전국 각지의 운동장에서 시범을 보이며 자신의 야구 지식을 전수하는 중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도 라오스에 연 3회 이상 건너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초중고 야구부와 사회인동호회, 여자야구팀을 오가며 재능기부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고 목표를 밝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곽창일 기자 ico@donga.com

서구민을 위한 자진거 보험

50만 모든 서구민이 2016년 2월 26일부터 자진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인천광역시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